



보도자료



(주소) 16614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25 (팩스) 031-898-7889

| 배 포 일 | 2024.12.22. | 쪽수 | 사진 | 기관 도메인주소 | 자료 문의 |
|---------------------------|-------------|----|----|--------------|---|
| 보 도 일 | 2024.12.23. | | | | |
|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에 첫 발을 내딛다. | | 1 | 1 | www.ggcf.kr/ | 부서 : 조사연구팀 담당 : 윤소영 전화 : 031-231-8525 |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에 첫 발을 내딛다.

2024년 초 제정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작된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2024년 12월 실태조사 및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3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기존 자료수집과 신규자료 발굴,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2024년 실태조사 및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2월에는 역사강좌, 3월에는 인문포럼, 4월에는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한다.

2월 역사문화강좌의 컨셉은 ‘강산의 의로운 장부들’이다. 개화기 의병이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반시민의 사전 이해를 돕는 기념계승 프로그램이다. 3월 인문포럼과 4월 학술심포지엄은 기념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기념주제를 찾는 학술활동이다. ‘바깥포럼 1895’로 진행될 포럼은 애국심, 자치역량,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애도로서 20세기에 더해질 우리시대, 21세기에 걸맞는 기념주제를 모색한다. 어떻게 연구하고 무엇을 기념할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4월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행정구역의 잦은 변화와 정주율이 낮았던 경기도의 역사성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념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무명의병의 시공간적 개념을 역사적으로 짚는다.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핵심가치를 찾는 것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의 목표이다. 확정된 프로그램 구성과 구체적 일정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